



생활
공감
모니터단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아이디어.zip

제6기 생활공감모니터단
우수제안사례집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02-2100-3399 | www.mois.go.kr



행정안전부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아이디어.zip

제6기 생활공감모니터단
우수제안사례집

PART_1

참 편리한.ZIP :

조금 더
편리하게
살아요

| | | |
|----|---|----|
| 01 | 우편물 반송함, 마을 입구에 설치하면 어떨까요? | 08 |
| 02 | 도로명 주소명 배부 시 영문주소도 병기해 주세요 | 10 |
| 03 | 점점 사라지는 우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간이우체통을 설치해 주세요 | 12 |
| 04 | 엄화갈슌 제설함 속에 용기도 함께 보관해 주세요 | 14 |
| 05 | 우체국 택배 영수증에 수취인 주소도 표기해 주세요 | 16 |
| 06 | 서울대공원 공중케이블카 운행구간에 분실물 낙하지점을 표시해 주세요 | 18 |
| 07 | 안전상비의약품 목록표를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세요 | 20 |

PART_2

참 믿음직한.ZIP :

믿고 맡겨도
될까요

| | | |
|----|--|----|
| 08 | 보건증 속 전문용어 너무 낯설고 어려워요 | 24 |
| 09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자 알림서비스가 필요해요 | 26 |
| 10 | 경찰청 홈페이지 교통위반신고 제보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 28 |
| 11 | 현장 발행 범칙금 납부 통지서 뒤에 정보가 부족해요 | 30 |
| 12 | 수험생에게 시험당일의 시험장 주변 행사 및 교통통제 상황을 미리 알려주세요 | 32 |
| 13 | 피상담자 입장을 고려한 행정절차가 필요해요 | 34 |
| 14 | 상하수도 요금, 요금 고지서 여백을 활용해 주세요 | 36 |

PART_3

참 든든한.ZIP :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요

| | | |
|----|---|----|
| 15 | 민영주택 특별공급,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게 해주세요 | 40 |
| 16 | 버스정보 단말기로 버스 결행 및 노선 변경 정보를 실시간 음성 안내해 주세요 | 42 |
| 17 | 반려동물 분양시설에 입양조건 안내물을 비치해 주세요 | 44 |
| 18 | 장애인 차량 가짜 스티커 식별앱이 필요해요 | 46 |
| 19 | 영농 폐비닐 집하장 수용 규모를 늘리고 조기에 수거해 주세요 | 48 |
| 20 | 관광객으로 몸살 앓는 마을, 가이드 투어를 실시해요 | 50 |
| 21 | 제주 절물휴양림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벤치를 디자인해요 | 52 |

PART_4

참 안전한.ZIP :

이웃의 생명과
안전까지
지켜요

| | | |
|----|----------------------------------|----|
| 22 | 산불 진화 헬기를 위한 이동식 저수조를 운영해요 | 56 |
| 23 | 화장실에 데이트 폭력 예방법 스티커를 부착해요 | 58 |
| 24 | 학교 지킴이들에게 조끼를 착용하게 해주세요 | 60 |
| 25 |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스마트폰 사용금지 멘트를 송출해 주세요 | 62 |
| 26 | 카셰어링, 독 부러지는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해요 | 64 |

PART_5

참 살맛나는.ZIP :

일하는
즐거움을
키워요

| | | |
|----|-------------------------------------|----|
| 27 |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 지체 없이 지급하여 권리를 지켜주세요 | 68 |
| 28 | 농기계 임대 사업보다 농기계 작동법 교육이 먼저입니다 | 70 |
| 29 | 고교생 직업학교 훈련장려금 지급, 너무 늦고 너무 적어요 | 72 |
| 30 | 고용보험료 지원 고지서에 사업주 부담액 칸을 추가해 주세요 | 74 |

PART

참 편리한.ZIP : 조금 더 편리하게 살아요

‘작지만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편리해집니다.

생활공감 모니터단들이 생활 속에서 얻은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이들의 깨알 같은 제안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조금 더
편리하게
살아요



1

- 01 우편물 반송함, 마을 입구에 설치하면 어떨까요?
- 02 도로명 주소명 배부 시 영문주소도 병기해 주세요
- 03 점점 사라지는 우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간이우체통을 설치해 주세요
- 04 영화칼슘 제설함 속에 용기도 함께 보관해 주세요
- 05 우체국 택배 영수증에 수취인 주소도 표기해 주세요
- 06 서울대공원 공중케이블카 운행구간에
분실물 낙하지점을 표시해 주세요
- 07 안전상비의약품 목록표를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세요

우편물 반송함, 마을 입구에 설치하면 어떨까요?

01 Policy proposal



이정숙 [경남 남해군]
· 2017년 2분기 우수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잘못 온 우편물 어디다 둘까요?
가끔 우편물이 잘못 올 때가 있어요. 우편함에 그대로 방치해 두면 수거해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집은 따로 우편물 반송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바로 반송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 아파트나 일부 공동 주택을 제외하고는 집집마다 반송함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가 문제 일까요?

- 우편물을 반송하려면 우체국까지 찾아가야 하나요?
우편물 반송함이 없다면 반송을 하려면 동네의 빨간 우체통을 찾아다니거나 우체국까지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부터 분초를 다투며 출근을 서둘러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마을 입구에 반송함을 설치해 주세요.
마을 입구나 버스 승강장 등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 우편물 반송함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특히 바쁜 직장인들도 출퇴근할 때마다 반드시 한번 이상은 들리는 곳이라 반송이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잘못 온 우편물은 다시 주인에게!
첫째, 보낸 사람도 수신여부를 알 수 있고 반송시 알 수 있어요. 둘째, 잘못 온 우편물은 다시 주인에게 돌려 줄 수 있어요.

도로명 주소명 배부 시 영문주소도 병기해 주세요

02 Policy proposal



장윤기 [충남 당진시]
· 2017년 2분기 장려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자기집 영문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집 주소를 영문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영어를 꽤 한다는 사람들도 영문 주소 표기법, 순서 등을 헷갈려합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해외로 편지 보낼 일이 많아졌어요.
유학 간 자녀,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 등 해외로 편지를 보낼 일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해외에서 이주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컴퓨터 사용법을 모르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습니다. 집 주소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몰라 유학 간 자녀에게 편지를 마음껏 보낼 수 없는 부모의 남모를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도로명 주소 재배부시 영문주소도 병기하면 어떨까요?
새로 바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집집마다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한글 도로명 주소 아래에 영문주소도 함께 표기해 놓는다면 누구나 자기집 주소의 영문표기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글로벌 시대, 한글·영문 병기한 주소 스티커를 붙였어요.
첫째, 글로벌 시대에 맞는 맞춤형 주소 스티커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둘째, 이주가정 / 해외동포를 둔 가정 / 유학자녀를 둔 가정에 아주 유용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셋째,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할 수 있어요.

점점 사라지는 우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간이우체통을 설치해 주세요

03 Policy proposal



정방섭 [서울 성북구]
· 2017년 4분기 우수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우체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메일로 편지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동네마다 있던 우체통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요.

뭐가 문제 일까요?

— 우체통이 사라지자 우표 파는 가게를 찾기도 힘들어졌어요
내가 사는 서울 창문여고 앞에 우체통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우체통이 없어지니 우표를 팔던 상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손편지를 보낼 일이 생길 때마다 먼곳까지 우체통을 찾아다녀야 해서 불편합니다. 아무리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손글씨를 써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인건비 등의 이유로 우체통을 철수했으면 후속 대안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우표도 팔고 간이 우체통도 설치하면 어떨까요?
아파트마다 매일 우편배달부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간이 우체통을 설치하면 매일 수거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우표도 판매하면 훨씬 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는 일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주관 부서에서 행정권을 발동해준다면 좋겠습니다.

꼭 달라질 수 있어요!

— 간이우체통도 생기고 관리사무소도 더 가까워지고
첫째, 공동주택 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요.
둘째, 우체통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염화칼슘 제설함 속에 용기도 함께 보관해 주세요

04 Policy proposal



이숙경 [서울 성북구]
· 2018년 1분기 우수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폭설이 쏟아지는 날, 제설함 열어 본 적 있나요?
해마다 폭설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생각하면 염화칼슘의 사용을 자제해야겠지만 쓸어도 쓸어도 쌓이는 눈이라면 염화칼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제설함을 열었다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염화칼슘 통째로 들이부어야 하나요?
제설함의 염화칼슘을 사용하기 위해 제설함 뚜껑을 열어보니 누런 포대에 염화칼슘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설함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내부가 무척 지저분하고 포대 속 염화칼슘은 딱딱하게 굳어있어 뿌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적당량을 쓸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째로 쏟아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적정한 양만 살포할 수 있도록 용기를 마련해 주세요**
제설함 안에 염화칼슘을 적당량 덜어 쓸 수 있게 용기를 넣어놓는다면 주민들이 좀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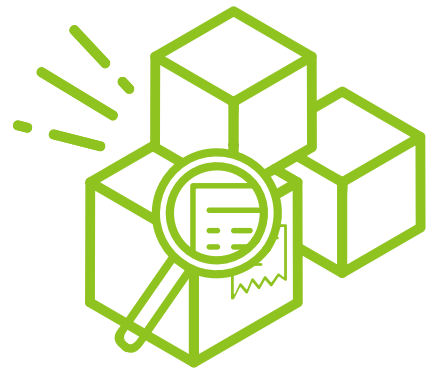
- **염화칼슘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수 있어요**
첫째, 적정한 양의 염화칼슘만 살포할 수 있어요.
둘째, 염화칼슘의 남용으로 인한 차량부식, 도로훼손,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

우체국 택배 영수증에 수취인 주소도 표기해 주세요

05 Policy proposal



최성순 [부산 사하구]
· 2018년 1분기 장려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우체국 택배 영수증에서 수취인 주소가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부치고 영수증을 받아보면 받는 사람 주소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요즘은 영수증에 보낸 사람 주소만 있고 받는 사람 주소는 없어졌어요.

뭐가 문제
일까요?

- 접수창구에서 운송장 기록을 잘못할 경우가 있어요
만약, 접수창구 직원이 운송장에 기록을 잘못할 경우 택배가 다른 곳으로 배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일 경우 반송 조치가 늦어지면 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을까요?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영수증에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주소를 표기하여 발급해 주세요
영수증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 택배 접수창구 직원이 잘못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발송인이 영수증을 통해 바로 확인함으로써 입력오류로 인한 배송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영수증만 잘 확인해도 택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요
첫째, 접수창구에서 영수증 주소를 확인하면 수취인 주소가 바르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시간을 다투는 택배물도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쳤어요! (우정사업본부)

택배 접수 시 영수증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록하여 발송인이 바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공중케이블카 운행구간에 분실물 낙하지점을 표시해 주세요

06 Policy proposal



박원관 [울산 중구]
· 2017년 연말 국무총리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공중케이블카를 타다가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위치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며칠 전 손자와 함께 서울대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손자와 함께 공중케이블카를 타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 아래에는 안전을 위한 그물망이 쳐져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실수로 떨어뜨린 신발이며 가방들이 간간이 눈에 띄어 안타까웠습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어디쯤에 떨어뜨렸냐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린 물건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어디쯤에 떨어뜨렸다고 설명해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넓고 넓은 발아래에는 위치를 설명할 만한 표시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안전요원들은 많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하니 난감했습니다.

똑! 부러지게 제안해요!

- 그물망에 구간 표시를 해놓으면 어떨까요?
그물망 위쪽에 적당한 거리마다 한글이나 영어, 숫자 등으로 구간 표시판을 만들어 놓으면 낙하지점의 위치를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2구간 중간쯤에 신발을 떨어뜨렸어요
첫째, 분실물 낙하지점을 쉽게 알 수 있어 신고도 편리하고 물건 찾기도 훨씬 쉬워져요.
둘째, 구간 구별이 뚜렷해져 케이블카 구조물 정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안전상비의약품

목록표를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세요

07 Policy proposal



최영미 [경기 동두천시]
· 2017년 연말 장관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24시간 편의점에서 어떤 상비약을 판매하는지 외우고 다니나요?

현재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공휴일 시간에 상비약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13품목의 의약품에 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가지 품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뭐가 문제 일까요?

— 불편하게 편의점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나요?

일반 시민들은 편의점에 어떤 상비약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고서는 어떤 약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은 당연히 판매하겠거니 생각하지만 모든 종류의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보건소 홈페이지에 목록표를 상시 게재해 주세요

보건소 홈페이지에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목록표’를 게재해 주세요. 그리고 편의점 입구에도 목록표를 부착해 놓는다면 시민들이 오며가며 평소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처 소독에 필요한 과산화수소나 포비돈요오드 등 소독약도 상비약 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2차 염증이나 괴사를 피하려면 적정 시간 내에 상처소독이 필요합니다.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상비약이 급할 땐, 보건소 홈페이지부터 확인하세요

첫째, 홈페이지에서 판매목록을 확인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둘째, 편의점 의약품 수를 확대한다면 골목길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어요.

PART

참 믿음직한.ZIP : 믿고 맡겨도 될까요

국민이 '아'하면 '어'하는 정책, 내 마음 속 가려운 곳까지 긁어주는 시원한 정책.

탁상에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정책입니다.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국민의 시각으로 생각하는 생활공감 모니터단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 08 보건증 속 전문용어 너무 낯설고 어려워요
- 09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자 알림서비스가 필요해요
- 10 경찰청 홈페이지 교통위반신고 제보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 11 현장 발행 범칙금 납부 통지서 뒤에 정보가 부족해요
- 12 수험생에게 시험당일의 시험장 주변 행사 및 교통통제 상황을 미리 알려주세요
- 13 피상담자 입장을 고려한 행정절차가 필요해요
- 14 상하수도 요금, 요금 고지서 여백을 활용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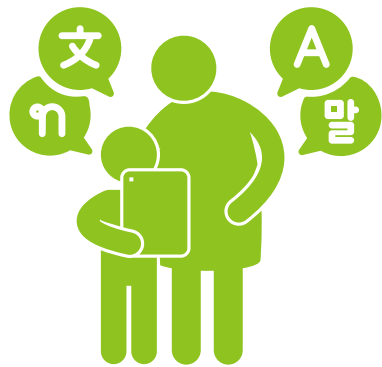


보건증 속 전문용어 너무 낯설고 어려워요

08 Policy proposal



이홍섭 [경기 수원시]
· 2017년 3분기 우수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보건증 진단항목에 도저히 알 수 없는 항목이 있어요
보건증의 항목에는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Chest P-A 등이 있습니다. 이 4가지 항목이 모두 정상이라야 식품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세균성이질, 전염성 피부질환 같은 용어도 쉬운 말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힘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Chest P-A는 도저히 짐작조차 하기 힘든 항목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전문용어라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의학전문가가 아니라도 Chest P-A쯤은 알아야 하나요?
보건증은 식품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의학전문가들이 지니고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 조리사, 대형마트의 시식행사 요원 등과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증서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용어는 죄다 전문용어들뿐입니다.

똑!
부러지게
제안해요!

- 좀 더 쉽게 “폐 엑스레이”라고 말하면 너무 쉽나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평범한 용어로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Chest P-A라는 용어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흉부 엑스선 촬영” 또는 “폐 엑스레이”라고 표기하면 어떨까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보건증 속 의학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첫째, 일반인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고 해석도 쉬워져요.
둘째, 전문용어의 오남용을 줄이고 쉬운 우리말의 사용을 활성화해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자 알림서비스가 필요해요

09 Policy proposal



이영용 [서울 관악구]
· 2017년 4분기 우수제안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사업제안을 했는데 진행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구청에서는 해마다 봄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제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 본과위원회 상정, 조정협의회 상정, 최종 선정 등 4단계가 있다고 안내를 받기는 했으나 현재까지도 진행과정을 볼 수도 없고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궁금하면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들락거리라고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 조정협의회 회의록을 일일이 검토해야만 선정 여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안자에게 아무런 안내도 배려도 없다면 앞으로 시민들은 좋은 제안이 있어도 참여를 꺼리게 될 것입니다.

똑! 부러지게 제안해요!

-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진행과정이나 선정결과를 알려주세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할 때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과정이나 결과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세요. 사업제안을 해도 사업제안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나 보상이 없는 것도 아쉽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더 좋은 제안을 쏟아 내지 않을까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더 좋은 제안을 이끌어 낼 수 있어요
첫째, 제안자가 결과를 알기 위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어요.
둘째,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좋은 제안을 이끌어 낼 수 있어요.

이렇게 고쳤어요! (서울 관악구청)

- 첫째, 진행결과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둘째, 향후 선정결과를 문자 등으로 알려드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 셋째, 상품 지급은 공직선거법 등으로 인해 실시가 어렵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교통위반신고 제보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10 Policy proposal



이해결 [부산 연제구]
· 2017년 연말 대통령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신고하려면 회원가입까지 해야 하나요?
경찰청 홈페이지에 교통위반을 제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컴퓨터에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감수한다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까지 해야 합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절차가 복잡해 간단한 신고도 꺼려집니다
교통위반 신고는 자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외의 각종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의 신고를 위해서 많은 개인정보가 필요한 회원가입까지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제보를 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제보의 중요도에 따라 공공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을 사용하세요
제보의 종류나 중요도에 따라 간단한 교통위반 신고 등은 회원가입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면 공공아이핀,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등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한다면 신고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이 방법은 국민신문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보·제안용 홈페이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확! 달라질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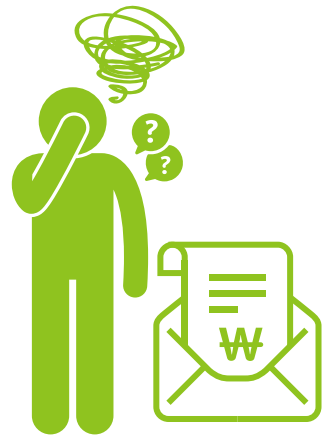
- 신속하게 제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첫째, 제보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제보할 수 있어요.
둘째, 신속한 제보를 했으니 신속한 처리도 기대할 수 있어요.

현장 발행 범칙금 납부 통지서 뒤에 정보가 부족해요

11 Policy proposal



안호일 [강원 삼척시]
· 2017년 연말 장관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범칙금 납부 통지서에 의견제출 기한이나 감경액에 대한 지침이 없어요

교통 범칙금 납부 통지서 뒷면에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알리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제출 기한이나 부과된 과태료 감경액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고 얼마나 감경되나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 제출을 언제까지 하라는 안내가 없습니다. 또한 이의 없이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가 감경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명확한 퍼센트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 부러지게 제안해요!

— 의견제출 기한과 명확한 수치를 명시해 주세요

의견 제출 기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명시된 범칙금 1차 납부 기한 내 의견 제출' 등으로 명시해 주세요. 또한 가산금처럼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더한 가산금 부과'처럼 부과된 명확한 퍼센트를 명시해 주세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서비스의 의무를 지켜요

첫째,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오해를 방지해요. 둘째,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행정서비스의 의무를 지켜요.

수험생에게 시험당일의 시험장 주변 행사 및 교통통제 상황을 미리 알려주세요

12 Policy proposal



진현곤 [경남 창원시]
· 2017년 연말 장관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시험장 진입 도로가 막혀 시험을 못 치를 뻔 했어요
얼마 전, 아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멀리 창원엔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험장 근처의 창원대로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막혀 있어 우회하느라 시험시간에 늦을 뻔 했습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수험생들은 시험장 주변 상황을 몰라요
수험자 입장에서는 시험 준비에 집중하느라 시험당일 시험장 주변의 상황까지 미리 체크할 여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시험장이 타 지역인 경우라면 초행길의 수험생들이 우회도로를 찾느라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시험일 전 시험장 주변의 도로상황을 미리 알려주세요
수험생들에게 시험일 전에 시험장 주변의 행사나 교통통제 상황에 대해 미리 알려주세요. 특히 우회도로 정보도 함께 알려주면 초행길의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시험장 주변 상황을 미리 안다면 출발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첫째, 시험 당일 집에서 출발시간을 조절하거나 교통편을 바꾸어 제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어요.
둘째, 시험 당일 발생하는 돌발상황을 줄여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어요.

피상담자 입장을 고려한 행정절차가 필요해요

13 Policy proposal



정방섭 [서울 성북구]
· 2017년 연말 장관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상담할 내용을 반드시 프린트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서울시에 법률상담을 위해 전화예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시간 10분 전까지 도착하되 상담 내용을 유인물화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상담할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프린트가 없거나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할 내용을 반드시 프린트로 제출해야 하는 절차는 피상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절차입니다. 집에 프린트가 없는 피상담자이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고장이 난 경우라면 상담을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예약시간 10분 전에 제출하면 상담자가 검토할 시간도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실한 상담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상담내용을 이메일로 접수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주세요**
상담 내용을 이메일로 접수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실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상담신청 방식을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구축한다면 일일이 전화로 예약할 필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보다 편리하고 심도있는 법률상담을 기대해요**
첫째, 상담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보다 심도있는 법률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둘째, 온라인 상담예약이 구축될 경우 피상담자, 안내직원, 법률상담가 모두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상하수도 요금, 요금 고지서 여백을 활용해 주세요

14 Policy proposal



장명숙 [경북 구미시]
· 2018년 1분기 우수제안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상하수도 요금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얼마 전,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물을 사용한 것 같지 않은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관에 확인해 봤더니 요금이 인상되었다며 인상 안내장을 이미 배포했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인상 안내장이 너무 일찍 배포되고 있어요
문제는 너무 일찍 안내장이 배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에 바쁜 시민들이 언제부터 인상될 것인지 일일이 기억하기 힘듭니다. 정작 요금이 인상된 달에는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하니 요금인상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상하수도 고지서 여백에 인상 안내 문구를 넣어 주세요
요금인상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 인상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별도의 안내장을 배포하는 것보다 고지서의 여백에 안내 문구를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인상여부도 쉽게 알고 인세비용도 줄여요
첫째, 인상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고지서의 여백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내장 인쇄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고쳤어요! (경북 구미시청)

구미시는 2018년 3월 부과분부터 제안자님의 의견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PART

참 든든한.ZIP :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요

배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

평생 마음껏 제 목소리를 내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살펴서 얻은

생활 속 아이디어들을 통해 다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3

- 15 민영주택 특별공급,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게 해주세요
- 16 버스정보 단말기로 버스 결행 및 노선 변경 정보를 실시간 음성 안내해 주세요
- 17 반려동물 분양시설에 입양조건 안내물을 비치해 주세요
- 18 장애인 차량 가짜 스티커 식별앱이 필요해요
- 19 영농 폐비닐 집하장 수용 규모를 늘리고 조기에 수거해 주세요
- 20 관광객으로 몸살 앓는 마을, 가이드 투어를 실시해요
- 21 제주 절물휴양림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벤치를 디자인해요



민영주택 특별공급,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게 해주세요

15 Policy proposal



곽현식 [서울 송파구]
· 2017년 4분기 최우수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청약신청 하려면 모델하우스로 방문하세요?
현재 아파트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하려면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장애인들도 꼭 방문신청 해야 하나요?
고령의 어르신들, 휠체어 장애인들, 임산부 등 거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모델하우스까지 직접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을 경우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방문에 어려움을 느껴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온라인 접수 가능하게 해주세요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청약신청(청약접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청약자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첫째,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청약신청을 할 수 있어요.
둘째, 특별공급 신청자들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고쳤어요! (국토교통부)

청약신청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중 주택법 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보 단말기로 버스 결행 및 노선 변경 정보를 실시간 음성 안내해 주세요

16 Policy proposal



고기봉 [제주 서귀포시]
· 2018년 2분기 최우수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왜 교통정보 변경사항은 음성으로 안내하지 않나요?
대부분 버스 정보 단말기는 버스노선 도착안내를 하고 있지만 재난 및 사고로 인한 변경사항을 음성으로 안내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시각장애인들은 음성안내가 아니면 교통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변경된 상황을 쉽게 인식할 수 없으며 음성으로 청취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폭설이나 사고 등으로 버스가 오지 않을 경우에도 시각장애인들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버스정보시스템에 버스 결행·노선변경 실시간 음성안내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버스정보시스템에 버스 결행 및 노선 변경 등의 교통정보도 실시간으로 음성 안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음성으로 “201번 버스가 폭설 및 사고로 어디에서 어디로 우회하여 운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를 하면 일반인들은 물론 시각장애인들도 교통상황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되고 환경도 좋아져요
첫째, 시각장애인들도 좀더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요.
둘째, 대중교통 활성화로 주차난 해소, 미세먼지 감소 등의 2차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쳤어요! (제주도청 대중교통과)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버스정보 안내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분양시설에 입양조건 안내물을 비치해 주세요

17 Policy proposal



이해결 [부산 연제구]
· 2017년 4분기 우수제안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분양시설에 왜 입양조건 안내물이 없어요?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양을 할 때 주의할 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양시설에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안내물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자신의 입양조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간적인 충동으로 입양을 하거나 입양에 따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입양할 경우 갈등과 학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관련 자료나 안내문이 필요해요.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입양 안내서를 분양업체에 의무적으로 비치해 주세요
입양 시 입양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문화한 안내문으로 만들어 분양업체에 비치하도록 권고하거나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주세요. 특히 안내문에는 입양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입양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주인도 반려동물도 행복한 입양을 해요
첫째, 입양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입양을 방지할 수 있어요.
둘째, 반려동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학대, 유기를 방지하고 이웃간의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쳤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 첫째, 동물보호·복지 관련 홍보 및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둘째, 입양 희망자 교육프로그램 마련시 입양 안내서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가짜 스티커 식별앱이 필요해요

18 Policy proposal



박영식 [전남 광양시]
· 2017년 4분기 우수제안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가짜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양체 운전자가 많아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형 백화점, 시장, 체육시설, 관공서, 기타 편의시설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는 몰염치한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스티커 위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장애인 스티커 위조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으면 장애인 차량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똑!
부러지게
제안해요!

— **장애인 차량 허위스티커 식별앱을 개발하면 어떨까요?**

허위 스티커를 식별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면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차량번호를 조회해 진짜 장애인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국민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앱으로 365일 신고할 수 있게 한다면 양체 운전자들도 사라지고 장애인들에게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접근권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기대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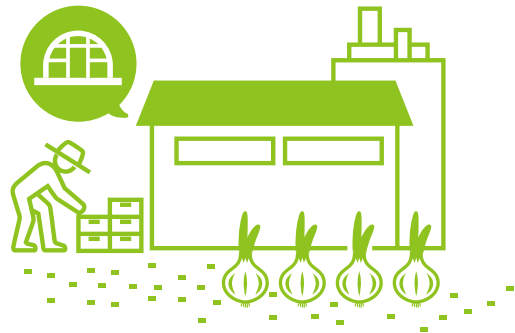
첫째, 스마트폰만 있으면 대한민국 누구나 장애인 허위차량을 식별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둘째, 고도화 되어가는 법위반자들을 철저히 응징하여 법외의 평등을 구현해요.
셋째,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여요.

영농 폐비닐 집하장 수용 규모를 늘리고 조기에 수거해 주세요

19 Policy proposal



윤필태 [경북 상주시]
· 2017년 연말 장관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집하장 주변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비닐이 있어요
매년 농작물 재배 및 수확에 사용한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해 지역별 영농폐비닐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촌에서 양파를 수확한 후 폐비닐을 영농 폐비닐 집하장에 옮겨 놓았으나 현재의 집하장 규모로는 수용이 불가능하여 집하장 주변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폐비닐 오물이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요
주변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변환경이 불결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장마로 비가 많이 내릴 경우 폐비닐에 묻어있던 오물이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리 책임자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관리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해주세요
첫째, 지역별 영농면적에 비례한 적정규모의 집하장으로 변경해 주세요.
둘째, 일시적으로 폐비닐이 많이 모일 경우, 특별처리기간을 설정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셋째, 영농 폐비닐장 관리자가 현장상황을 담당부서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해주세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지켜요
첫째,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폐비닐로 인한 주변 환경 훼손을 방지할 수 있어요.
둘째,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셋째,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가장 빠른 시간 내 폐비닐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관광객으로 몸살 앓는 마을, 가이드 투어를 실시해요

20 Policy proposal



김지숙 [광주 광산구]
· 2018년 2분기 우수제안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관광객 때문에 못 살겠어요
서울의 북촌, 이화동을 비롯해 경북의 안동시 하회마을 등은 주거지역이면서 유명관광지라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소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관광객 때문에 못살겠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쓰레기는 물론, 반려견까지 버려요
제주의 우도, 벽화마을, 문화마을은 물론이고 충북 옥천 등의 지역에서는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들도 늘어나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유명관광지에서도 이런 관광객들을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지정된 곳만 가이드 투어하고 입장료를 받아요
첫째, 현지주민들과 합의하여 지정된 곳만 공식가이드와 투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주요관광지 입구에서 입장료를 징수해 주세요.
셋째, 여행사에서 관광객에게 쓰레기봉투를 의무적으로 배부하고 사생활 침해방지 등의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관광질서도 확립하고 마을도 발전해요
첫째, 해당마을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줄일 수 있어요.
둘째, 입장료를 해당마을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면 마을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셋째, 입장료 받는 직업이 생기는 등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만들어져요.
넷째, 관광객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져요.

제주

절물휴양림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벤치를 디자인해요

21 Policy proposal



박은경 [제주 제주시]
· 2017년 연말 장관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왜 휴양림 벤치와 테이블은 모두 비장애인만 차지하고 있을까요?

제주의 절물휴양림은 다양한 행사도 개최하고 볼거리도 많아서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도 즐겨 찾는 휴식공간입니다. 평상이나 벤치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하기도 좋아요. 그런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시설마저도 그림의 떡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 일까요?

— 장애인들은 휴양림에 놀러 와서도 휠체어를 벗어날 수 없어요

휴양림에 설치된 벤치나 테이블이 대부분 비장애인 기준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휠체어 장애인들은 휴양림에 놀러 와서도 좁은 휠체어를 벗어날 수 없답니다. 장애인들도 너른 평상에 편안하게 누워 휴식을 취할 수는 없을까요.

똑! 부러지게 제안해요!

—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테이블이나 벤치를 ㄱ자, ㄷ자, T자 모양 등 다양하게 디자인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사회적 약자인 휠체어 장애인들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한다면 비장애인들과 유대관계도 더욱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요

첫째, 공공장소에도 사회적 약자인 휠체어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한다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요.

둘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켜요.

PART

참 안전한.ZIP : 이웃의 생명과 안전까지 지켜요

국민의 안전한 삶, 생활공감 모니터단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실현합니다.

우리의 작은 아이디어가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방치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열정,

그 작은 소리까지 귀담아 들으며 국민의 안전지수를 높이겠습니다.

4

- 22 산불 진화 헬기를 위한 이동식 저수조를 운영해요
- 23 화장실에 데이트 폭력 예방법 스티커를 부착해요
- 24 학교 지킴이들에게 조끼를 착용하게 해주세요
- 25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스마트폰 사용금지 멘트를 송출해 주세요
- 26 카세어링, 뚝 부러지는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해요

이웃의
생명
과
안전까지
지켜요



산불 진화 헬기를 위한 이동식 저수조를 운영해요

22 Policy proposal



안호일 [강원 삼척시]
· 2018년 1분기 최우수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물을 구할 수 없다면?
올해 2월에 삼척에 산불이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동식 저수조를 운용한 덕분에 진화 헬기의 재취수 시간을 평균 5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저수조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강원도에서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헬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수조까지의 이동거리가 멀 경우 산불현장에 투입된 헬기의 재취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진화 헬기의 산불현장 투입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산불 빈번 지역에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하고 생활안전지도 앱에도 알려주세요
첫째, 산불발생시 취수용 이동식 저수조 설치 및 운영장소를 우선 선정해 주세요.
둘째, 각 지역별로 산불 발생이 빈번한 지역 인근에 취수용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해 주세요.
셋째, 관리 및 현황을 생활안전지도 앱에 게재하여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헬기 안전도 지켜요
첫째, 이동식 저수조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해요.
둘째, 이동식 저수조 운용 현황을 현실화하여 산불진화를 효율적으로 실시해요.
셋째, 진화 헬기의 재취수 비행시간(이동거리)을 단축시키고 헬기 안전사고도 예방해요.

이렇게 고쳤어요! (강원도 산림관리과)

산불진화 헬기의 취수용 이동식저수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행정안전부, 산림청)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데이트 폭력 예방법 스티커를 부착해요

23 Policy proposal



장윤기 [충남 당진시]
· 2018년 2분기 우수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데이트 폭력이었어요? 사랑인 줄 알았어요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여성은 467명이나 됩니다. 한 달 평균 7명의 여성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조차 데이트 폭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데이트 폭력, 말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이 정도를 가지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데이트 폭력에 대해 말은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데이트 폭력인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하다가 불의의 참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여성 화장실에 데이트 폭력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첫째, 여성 화장실 내에 데이트폭력 자가진단 및 예방법을 알려주는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둘째, 공공 화장실부터 우선 시행한 후 예산이 확보되면 상가 화장실 등으로 확대 시행해 주세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데이트 폭력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

첫째,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자율방어 및 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요.
둘째, 데이트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쳤어요! (경기 광명시청)

제안자님의 의견을 채택하여 2018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 지킴이들에게 조끼를 착용하게 해주세요

24 Policy proposal



오유석 [경남 창원시]
· 2018년 2분기 장려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학교 지킴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학교배움터 지킴이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두는 인력입니다. 학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직 교사나 전·현직 경찰관이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주 출입하는 지역에 배치하고 있어 '스쿨 폴리스'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누가 스쿨 폴리스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신분을 드러낼 표시가 없어요
경상남도교육청 관내에는 학교지킴이, 학교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의 신분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표시가 없습니다. 식별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지킴이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똑!
부러지게
제안해요!

— 근무시간에는 조끼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들은 관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근무시간에는 조끼를 입고 활동을 한다면 신분도 확인할 수 있고 좀더 빨리 도움도 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끼에 학교지킴이, 학교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이라는 문구를 넣어 주세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안전지킴이들의 자부심을 키워요
학교지킴이, 학교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이라는 문구를 넣은 조끼를 착용할 경우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고쳤어요! (경남 창원시청)

- 첫째, 배움터 지킴이 운영예산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둘째, 2019년 새학기 전에 안전조끼 착용이 정착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스마트폰 사용금지 멘트를

송출해 주세요

25 Policy proposal



김병욱 [경기 화성시]
· 2018년 2분기 우수제안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횡단보도 앞에 서면 더 많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아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행을 알리는 음성 소리만 듣고는 좌우를 살피지 않고 건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 일까요?

-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을 보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시대를 살면서 스마트폰을 포기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위험천만해 보이지만 선뜻 제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휴대폰 사용 금지 멘트를 송출하고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해 주세요
첫째, 횡단보도를 보행할 때 휴대폰 사용 자제를 알리는 멘트를 송출해 주세요.
둘째,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세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횡단보도를 안전지대로 만들어요
첫째, 횡단보도 보행 시 휴대폰 사용이 줄어들어요.
둘째,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카셰어링, 뚝 부러지는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해요

26 Policy proposal



김강미 [광주 광산구]

- 2017년 연말 장관상
- 2017년 2분기 우수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카셰어링, 아무나 빌려도 되나요?
무면허로 차를 빌렸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10대들이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차량을 109대나 빌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무면허 운전자나 10대 운전자가 카셰어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확인 절차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카셰어링 업체에서는 비대면 서비스의 특성상 원천 차단이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뭐가 문제 일까요?

- 본인인증절차가 너무 허술해요!
휴대폰 문자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운전면허 정보와 카드 결제번호만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이런 방식이면 무면허 운전자나 미성년자도 쉽게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운영돼도 될까요?

뚝! 부러지게 제안해요!

- 차량 내부에 본인 확인용 카메라를 설치해 주세요.
우선, 차량 내부에 사용자 확인용 카메라를 설치해 주세요. 영상을 통해 사용자와 운전면허증 속 인물이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시동이 걸리도록 사용 시스템을 개선하면 됩니다. 무면허, 미성년자, 명의도용으로 적발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 별도의 책임을 지우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무면허 운전과 명의도용을 차단하고 업체의 안전불감증도 줄일 수 있어요.
첫째, 무면허 운전과 명의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둘째, 업체가 적극적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셋째, 교통사고, 인명피해 등이 줄어들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어요.

PART

참 살맛나는.ZIP : 일하는 즐거움을 키워요

일터에서 혹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을 때 겪는 사소한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불편함.

제도가 미처 채우지 못한 빈틈들입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키우는 참 살맛나는 아이디어.
함께 제안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키워요

5

- 27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 지체 없이 지급하여 권리를 지켜주세요
- 28 농기계 임대 사업보다 농기계 작동법 교육이 먼저입니다
- 29 고교생 직업학교 훈련장려금 지급, 너무 늦고 너무 적어요
- 30 고용보험료 지원 고지서에 사업주 부담액 칸을 추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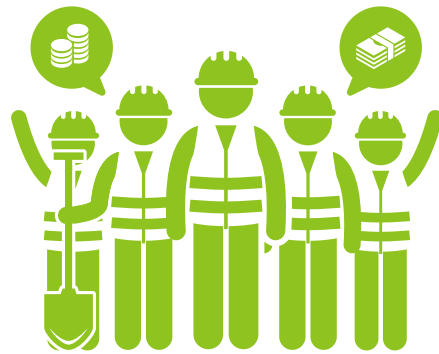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 지체 없이 지급하여 권리를 지켜주세요

27 Policy proposal



김보미 [부산 사상구]
· 2017년 4분기 장려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 환불이 안 되고 있어요**
건설공제회에서는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납부한 퇴직공제금이 252일 미만일 경우 환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하루하루 번 돈으로 납부한 퇴직공제금, 하루하루가 모여 252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일해서 번 돈으로 납부한 퇴직공제금입니다. 이것을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단 하루치라도 건설 현장 일용노동자의 몫입니다**
첫째, 일정기간 이상 납입된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규정된 지급방식대로 지급해 주세요.
둘째, 일정기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252일 미만 가입된 퇴직공제금은 지급해 주세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퇴직공제금을 만들어요**
첫째,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들인 건설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둘째,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고쳤어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현재,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보다 농기계 작동법 교육이 먼저입니다

28 Policy proposal



김삼화 [경남 창원시]
· 2018년 1분기 우수제안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강소농가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이지만...
정부에서는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소농이란 작지만 강한 농업이란 뜻입니다. 특히 강소농가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농기계 작동법 모르는 노인 및 여성 농가에 농기계 임대는 그림의 떡
각 지역마다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나 여성 농업인들의 경우 농기계 작동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귀농·귀촌하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농기계 임대는 그림의 떡입니다.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농기계 작동법을 가르쳐주세요
어르신들이나 여성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작동법 교육이 필요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들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통해 연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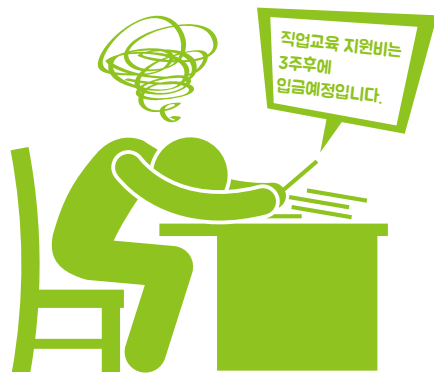
- 농기계 임대사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요
농기계들이 대부분 고가라서 강소농가에서는 구입을 못하고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르신들과 여성 농업인들도 농기계 작동법을 익힌다면 농기계 임대사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고교생 직업학교 훈련장려금 지급, 너무 늦고 너무 적어요

29 Policy proposal



박순영 [서울 영등포구]
· 2018년 2분기 장려상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직업교육 받는 고3생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중 직업교육을 받는 고3 학생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훈련비 외에도 매월 교통비와 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의 학생들에게 좋은 제도 같지만 정작 지원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왜일까요?

뭐가 문제 일까요?

— 지원비 수령에 3주가 말이 되나요?

지원비 지급은 통상 15일이 걸리고 해당 학교의 행정처리가 늦어지면 3주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지원비를 받으려면 학생이 개별적으로 직접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직업학교에 제출하고 해당학교에서는 출결상황 확인 등 여러 가지 행정과정을 거친 후에야 학생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식비는 3,300원에 불과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부족한 식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절차 간소화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급하고, 식비는 물가를 반영해 주세요.

첫째, 직업수당 신청은 직업학교에서 일괄신청하되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주세요.

둘째, 식비는 현실 물가를 반영하여 최소한 5,000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주세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지금보다 더 빨리 지원금을 받아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워요

첫째, 절차 간소화 시 지급기간은 1주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어요.

둘째, 지급 절차의 개선으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식비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료 지원

고지서에

사업주 부담액 칸을

추가해 주세요

30 Policy proposal



서명록 [경북 영주시]
· 2018년 1분기 우수제안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이 얼마인가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통지서를 통해 지원액이 있는 경우 사업주 지원액과 근로자 지원액을 표시하여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 사업주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하나요?

실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개개인별로 다시 계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러한 문의전화에 응대하느라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꼭! 부러지게 제안해요!

— 사업주 부담액 칸을 추가해 주세요

사업주용 고용보험료 지원 통지서에 사업주 부담액이란 칸을 추가해서 실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표시해 주세요.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한시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있어야 고용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사업주의 경영 효율과 공단의 행정 효율을 높여요

첫째, 사업주는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금액의 규모와 범위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둘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가 문의할 때마다 일일이 계산하여 답변해주는 번거로움이 사라져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아이디어.zip

제6기 생활공감모니터단 우수제안사례집

발행처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발행인 | 행정안전부

발행일 | 2018년 9월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3399
